

“이웃의 고통 함께 나누는 여러분이 부처님”

2560년 부처님오신날
전국사찰서 봉축법요식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의 탄생을 경축하는 법회를 열고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의 길벚이 되어 밝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을 서원했다. 지난 14일 서울 조계사에서서는 진제 종정예하, 원로회의 의장 밀운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이 봉행됐다.

법요식은 모두가 존귀한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우리사회 모든 이들과 함께 한 화합의 마당이었다. 다문화가정과 조계사 어린이들은 원로의장 밀운스님과 총무원장 자승스님으로부터 마정수기를 받았다. 또 세월호 미수습자 단원과 조은화 학생의 부모, 김보미 성소수자 서울대총학생회 회장,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해온 공익변호사재단 공감 윤지영 변호사, 박정훈 알바노조위원장, 우다야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풍요로운 세상을 기원하며 일곱송이의 연꽃을 공양했다.

진제 종정예하는 법어에서 지구상의 모든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불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종정예하는 “농부는 땅 흘려 농사지어 추수하는 기쁨의 웃음소리 가득하고 노동자는 산업현장에서 망치 소리와 기계 소리가 쉼 없이 울려 퍼지고, 남북한 동포들이 조국강산에서 각자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할 때, 그 날이 바로 부처님오신날”이라며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고 대신 앓는 동체대비의 대승보살도를 시현하는 그 곳이 부처님 오신 도량”이라고 설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봉축사에서 “부처님께서는 인류와 민족의 변역, 남북 화해와 평화 공존, 절망에 빠진 이웃과 함께하는 동체대비의 모습으로 오셨다”면서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부처님”이라고 역설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부처님오신날을 함께 축하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봉축메시지에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은 신 후 49년간 법을 설하시며, 모두가 행복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주셨다”면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우리 모두 소망과 함께 하면서 이 땅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요식에서는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불자들을 격려하는 불자대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총무원장 스님은 하영범 대구지방경찰청장과 국악인 남상일 씨, 기계제조 국가대표 양학선 선수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불기256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지난 14일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진제 종정예하는 이날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조계사 법요식에서 “동체대비의 대승보살도를 시현하는 곳이 바로 부처님 오신 도량”이라며 지구상의 모든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총본산 성역화는 한국불교중흥 대작불사”

진제 종정예하, 기금 2억원 ‘보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통해 전달
“국민들 정신적 구심점 역할” 강조
전 종도 불사후원 기폭제 될 듯...



진제 종정예하가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의 원만회향을 기원하며 큰 힘을 보탤다. 한국 불교 최대 대작불사로 꼽히는 조계종 총본산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기금모연**

- ARS모연 : 060-700-1027
- 문자모연 : #2540-1027로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메시지 장에 사찰명 또는 개인이름 입력)
- 모연계좌 : 농협 301-0160-9713-71 (계좌번호 2540-1027)
- 모연문의 : 02-730-6690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

성역화 불사기금으로 2억원을 쾌척한 것이다.

진제 종정예하(사진)는 지난 11일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기금을 전달하며 부처님의 자비심이 온 누리에 가득해 따뜻한 세상이 됐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종정예경실장 효광스님(팔공총림 동화사 주지)은 11일 “종정예하는 총본산 성역화 불사는 한국불교중흥의 염원을 실현하는 대작불사이면서, 국민들에게는 정신적인 구심점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늘 강조하셨다”면서 “종단의 최고 어른으로서 솔선수범하겠다는 뜻으로 이번에도 기금을 후원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진제 종정예하는 2011년 이래 부처님오신날과 연말에 빠지지 않고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후원을 하고 있다. 특히 2014년 4월19일 진도 팽목항과 실내체육관을 찾아 세월호 피해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가족들을 위로하고, 5월에 성금 1000만원을 후원했다. 같은 해 연말엔 소외된 이웃을 위해 100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해는 네팔 대지진으로 슬픔에 빠진 네팔 국민과 희생자를 애도하며 긴급구호기금을 네팔 대사관에 전달했다.

조계사 주지이자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 총도감 지현스님은 “종정예하는 평소 성역화 불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성역화 불사가 잘 추진되도록 후원에 꼭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면서 “종정예하의 후원을 계기로 불사의 원만회향을 위해 전 종도가 마음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총본산 성역화 불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조계사를 중심으로 인근 광화문과 인사동을 연계해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종단은 이 불사를 최우선으로 삼고 총무원장 스님의 남은 임기 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사를 중심으로 인근 광화문과 경복궁, 인사동을 연계한 역사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는 이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불사가 마무리되면 현재 모습에서 완전히 탈피해 서울의 중심 문화벨트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부처님오신날 연휴 관계로
5월21일 5월25일자 ‘휴간’
3204호는 5월28일 발행됩니다

독자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지혜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템플스테이

예비인력 양성교육 수강생 모집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문화 콘텐츠인 템플스테이를 이끌어갈 예비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나를 위한 행복여행'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구분	예비 지도법사	예비 실무자
교육기간	6월 13일(월) ~ 17일(금)	6월 24일(금) ~ 28일(화)
교육장소	백담사(강원 인제)	수덕사(충남 예산)
교육강사	운영사찰 주지스님, 지도법사 스님, 내·외부 전문가 등	
교육비	무료	
교육내용	템플스테이 운영 관련 주요 내용 교육 및 실습	
모집인원	20명	20명
교육대상	- 구족계 수지 스님 - 중앙승가대 및 동국대 4학년 학인스님	- 템플스테이에 관심 있는 일반인 - 현재 템플스테이 운영인력이 아닌 자
선정방법	- 접수마감 : 6월 2일(목)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공고일 기준 문화사업단에 운영인력으로 등록된 자 제외	
문의	1. 신청서 다운 받는 곳 : templestay.com 2. 신청서 제출하는 곳 : eemil@templestay.com 02)2031-2043,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교육연구팀 이민희	

※본 교육은 '승려연수교육에 관한 령' 6조에 의거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과정으로 인정됩니다.

